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재해석되는 한국전쟁

전쟁의 기원과 책임 논쟁에서 전쟁의 지속 원인 연구로 바뀌어...
평화정착과 남북통일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한국전쟁 연구해야

김계동 |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 달라져왔다. 냉전기에는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활용됐고, 데탕트 시절에는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본격적인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전쟁과 갈등에 대한 논쟁이 급격히 줄어들자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사항도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을 맺지 못한 채 역사 속에 흐르고 있다. 휴전 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한국전쟁은 냉전기에는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활용됐고, 평화를 논하던 데탕트 시절에는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1990년대 본격적인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국제적으로 과거 냉전시대에 회자하던 전쟁과 갈등에 대한 논쟁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사항도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전쟁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뤘으나, 요즘에는 한국전의 경험을 어떻게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냉전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군사적인 대립과 갈등 이외에 이념적인 대립도 함유하고 있었기에, 국가 또는 진영간의 갈등을 규정짓는데 개인의 주관이나 학자 또는 논평가들의 의식방향이 따라 대립적인 현상이 나타나곤 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이념을 바탕으로 한 보수와 진보성향이었고, 이에 따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이론이 파생됐다. 이 글은 이런 냉전시대 양 진영간의 이념적 대립과 국제정치 분석틀을 기본으로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 분석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 한국전쟁의 연구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의 평화와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해 한국전쟁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지도 말해보고자 한다.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 책임론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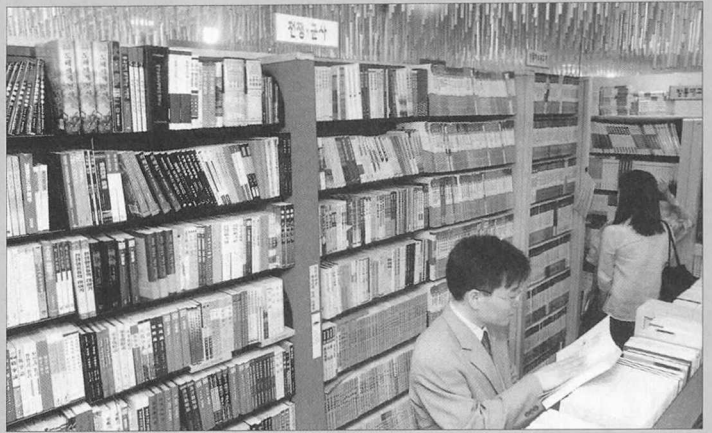
현대전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한국전은 넓게는 세계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로 양분돼 시작된 냉전의 첫번째 부산물이었으며, 좁게는 한반도 내에서 2차대전 종전과 함께 분단이 몰고온 갈등의 산물이다. 전쟁 발발 직후 서방세계는 공산축이 서방세계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인식했다. 이런 한국전에 대한 전통주의의 논리는 북한이 남침해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발발의 모든 책임은 북한 또는 공산진영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남침설은 중·소 주도설과 북한 단독계획설로 구분된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소련이 한반도에 영향권을 확장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켰고, 이는 자유세계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1960년대까지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주류는 소련이 한국전쟁을 일으켰거나 소련의 사주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에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다는 설을 주장하는 전통주의 시각의 학자들이 1960년대 미국 또는 서방 학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전은 소련이나 중국의 명령·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이 단독으로 일으켰다는 주장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은 흐루시초프 회고록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데, 흐루시초프는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김일성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침략자"라고 주장했다. 1990년대 이후 제한적으로 공개된 러시아 문서는 북한의 김일성이 단독결정해 전쟁을 일으켰으며, 스탈린에게 승인받았고 모택동도 동의한 전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탈린과 모택동이 장비 및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정주의 학자들은 한국전 발발의 책임이 남한과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이에 대비해 예방전을 일으켰거나, 한국이나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김일성을 유도했거나 함정을 파 놓은 것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보다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커밍스(Bruce Cumings), 시몬즈(Robert Simmons) 같은 학자들은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38선의 분쟁 등 내부분열이나 게릴라 활동의 연속 내지는 확대된 것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한국전쟁 연구는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전쟁관련 코너.

탈냉전 이후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든가, 책임론 논쟁은 한풀 꺾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실패함에 따라 친공산주의 성향을 띠었던 진보성향 또는 수정주의 학파가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거나 크게 약화됐다. 비록 전쟁의 당사국인 남북한이 대립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과거 냉전기의 대립과는 형태를 달리해 평화관계 수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논리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왜 한국전이 3년이나 지속됐는가

전쟁기원 및 책임론을 연구하는 이유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목적 이외에, 그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현재 또는 미래에 북한이 6·25와 같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내적으로 경제난 등 최근 들어 체제가 약화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외적으로는 과거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북한을 지원하기보다는 중립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방위력이 크게 향상돼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1950년과 같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와 함께 한미안보동맹체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선부르게 남침할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졌다.

이제 한국전쟁 연구는 냉전시대에 유행하던 전쟁기원 및 발발책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전쟁이 왜 3년씩이나 지속됐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으로써 시작됐고, 전쟁발발 1주일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하기 시작함으로써 국제전으로 확대됐다. 16개국은 유엔 결의에 따라 세계평화를 위해 참전했으나, 과연 한국에 개입한 국가들이 전쟁 종결까지 세계질서 및 세계인류의 평화와 안전만을 전승수행 목

적으로 삼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유엔결의를 지지해 참전한 16개국도, 후에 참전한 중국도 세계이익과 자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다. 참전국의 국가이익이 상이했기 때문에 연합국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했다. 전쟁을 확대해서라도 공산축에 서방세계의 힘을 보여 주자는 '확전론'과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하자는 '제한전론'이 대립했고, 중국문제를 한국전 해결의 협상도구로 활용하자는 '유화론'과 이에 반대하는 '강경론'의 대립이 있었다. 이런 의견대립으로 한국전쟁은 결국 3년 1개월 동안 지속됐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디딤돌 삼아야

1945년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함으로써 분단됐을 때 한국인들은 미소점령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못하게 봉쇄할 능력도 없었고, 38선 획정을 거부할 힘도 없었다. 따라서 1945년 한반도 분단의 경우 한국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것과 1950년 전쟁이 발발한 것은 한국인들의 책임이 크다. 이런 경험을 교훈 삼아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분단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평화와 통일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뢰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설사 오판으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을 냉전적인 사고의 틀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쟁의 성격과 수행과정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야만 풀 수 있는 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한 관계는 1950년대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경제·관광·스포츠·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다. 앞으로 한국전쟁 연구는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대결의 도구로 활용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민족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평화관계를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